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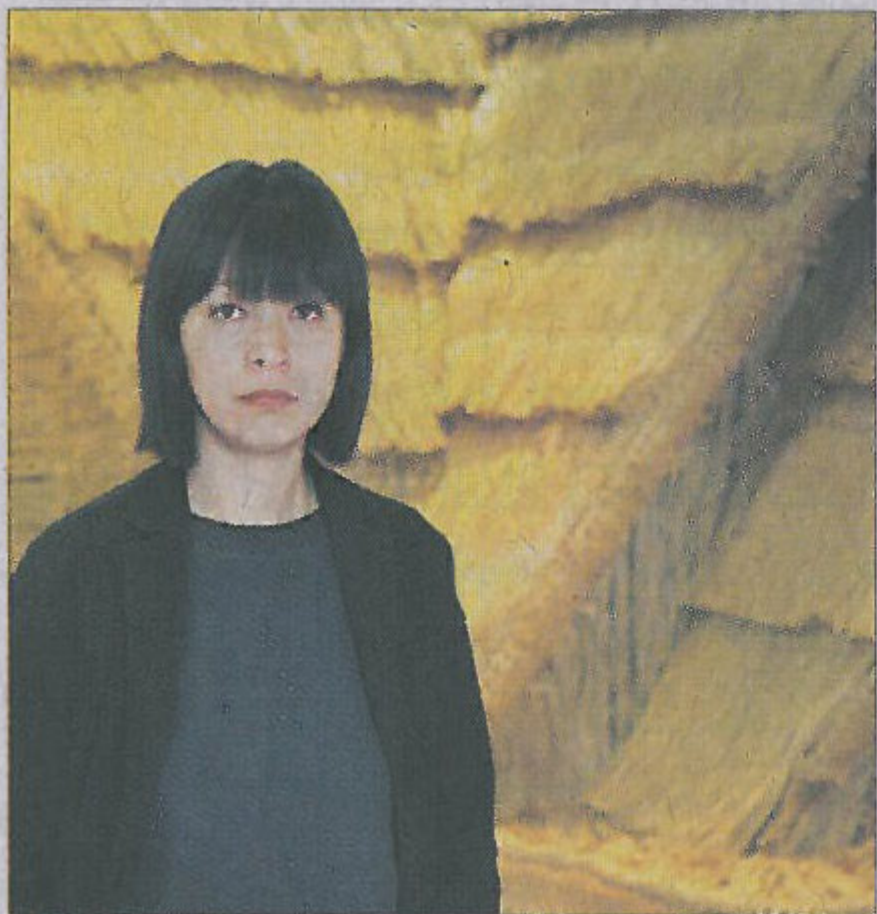
“코끼리는 순수 자연·인간 존엄성 상징”

설치작가 양혜규 씨 리움 개인전

지난 10일 서울 한남동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만난 설치미술가 양혜규 씨(44·사진)는 예민해 보였다. 오는 5월10일까지 열리는 개인전 ‘코끼리를 쏘다 象(상) 코끼리를 생각하다’가 관객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비칠지에 대한 우려와 불안 때문인 것 같았다.

“관객들이 전시실 위층에 설치된 블라인드 작품 ‘성채’의 비디오 영상을 꼭 볼 수 있도록 해달라”고 리움 측에 몇 번이나 당부했다.

서울과 독일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양씨가 국내 세 번째 개인전을 연다. 5년 만에 여는 국내 전시다. 서울예고,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199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유학을 떠난 그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(2009), 카셀 도쿠멘타(2012), 스위스 아트바젤(2014) 등 세계



유수 아트페어에 초청받은 스타 작가다. 이번 전시에선 2001년 이후 대표작과 신작을 포함한 조각, 설치, 영상, 콜라주 35점을 전시한다.

전시 제목은 조지 오웰의 수필 ‘코끼리를 쏘다’와 로맹가리의 소설 ‘하늘의 뿌리’에서 따 왔다. 양씨는 “코끼리는 인간에 의해 파괴되는 순수한 자연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약한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한다”고 설명했다.

인공 짚으로 엮어낸 ‘중간 유형’(2015)은 국내외에서 첫선을 보이는 설치작품이다. 고대 마야의 피라미드 엘 카스티요, 인도네시아의 불교 유적 보로부두르, 러시아의 이슬람 사원 라라 툴판을 참조한 구조물 3점과 인체를 형상화한 개별 조각 6점이 전시장에 대각선으로 놓여 있다.

양씨의 대표작도 관람할 수 있다. 유럽 미술계에 반향을 일으킨 초기작 ‘창고 피스’(2004), 서울 사람들의 생활상을 해학적으로 형상화한 ‘서울 근성’(2010), 사회 인사들이 사용한 의자를 대여해 마련한 작품 ‘VIP 학생회’, 186개의 블라인드와 무빙라이트 향 분사기 등으로 제작한 ‘성채’(2011) 등이 전시장에 늘어서 있다.

이번 전시는 리움이 서도호 전(展)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생존 작가의 개인전이다. 세미 회고전이란 전시 성격이 발목을 잡은 걸까. 한정된 공간 안에 작품을 육여넣은 모습이 아쉽다. 학생 4000원, 성인 7000원. (02)2014-6901